+

# 金지사 "통합 국립의과대학 신설 온힘 쏟겠다"

"전남도민 30년 염원, 정부 의대 증원 계획 포함 노력" 강조 "단독 유치 의견 표명도 선은 지켜야…갈등구조 안돼" 지적

김영록 전남지사는 19일 "지난 14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로 국립의과대학 신설 길을 열어준 만큼 이번 정부 의대 증원 계획에 통합 국립의과대학 신설이 포함되도록 온힘 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 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열어 "어제(18 일) 정부에 통합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신청했다"며이같이밝혔다.

이어 그는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은 전남도민의 30년 염원"이라며 "정부계 획 자체는 2025학년도 증원 계획이지만, 그 계획에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이 포 함되면 가장 좋고 안될 경우 따로 논의 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지사는 "통합 국립의대 신설 에 대한 도민 찬성 의견이 많고, 중앙부 처에서도 그런 방향을 이해하고 있다" 며 "캐나다에서 통합 의과대학을 신설 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성공 사 례가 있는 만큼 정부와 적극적으로 논 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지사는 또 "지역 별로 단독 유치 의 견 표명은 할 수 있겠지만 선을 지켜줬 으면 좋겠다"며 "건전한 의견은 낼 수 있지만, 그 의사 표명이 갈등 구조로 비 쳐져선안될것"이라고지적했다.

이는 노관규 순천시장과 순천대가 전 날 발표한 의대 단독 유치 계획에 불편 한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관 련, 김 지사는 "전남도와 무안군의 획기 적인 지원 대책에 더해 내년 KTX 공항 역사 완공을 앞두고 있어 정기 노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무안군과 협조 해 더 큰 성과를 내도록 하자"고 독려했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재해로 인정된 것에 대해 김 지사는 "계 속 건의했던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제대로 보상받도록 조치해주길 바란 다"고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수출로 김이 뜨고 있다. '검은 반도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김은 무게는 가벼운데 부피 가 커 저장하는데 문제가 있는 만큼 냉 장 보관부터 가공, 수출에 이르는 전 과 정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함께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 통 크게 추진하라"고 지시

/김재정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19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 와 정부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 대별 정원 배분 결과가 20일 공개될 것 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역의료 발전과 소규모 의대 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와 입학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 정원이 2배 가량 늘어 날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분 '2천명'에 대한 대학별 배 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20일 오후께 이

### 의대 증원 배분 오늘 발표

전남대 등 '지역국립대' 2배 수준 증가 전망

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증원된 정원은 비수도권에 80%(1천6 00명), 수도권에 20%(400명)가량 배분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천58명 가 운데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천35명(33 .8%),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천23명

(66.2%)이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수도 권 정원은 1천435명, 비수도권 정원은 3 천623명이 된다.

이번 정원 배분의 최대 수혜자는 '비 수도권 거점국립대'가 될 것으로 보인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정책의

가장 큰 이유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는 강원대(현 입학정원 49명), 경상국립대(76명), 전 남대(125명), 경북대(110명), 충남대(11 0명), 부산대(125명), 전북대(142명), 제 주대(40명), 충북대(49명) 등 9곳이다.

이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제주와 강원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지역 국립대 의대 정원이 최대 200명 수 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 국힘 광주 당원들 "비례 광주 배제는 기만행위"

#### 중앙당서 집회 "호남지역 인사 우선 추천 당헌・당규 지켜야"

국민의힘 광주시당 주요 당직자와 책임당원들이 19일 국민의미래 비례대 표 공천과 관련해 호남 홀대론을 주장 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총선 선거운 동보이콧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주요 당직자와 책임당원 30여명은 이날 국민의힘 중 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전날 국 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자 발표에 일 말의 기대를 가졌지만 그 기대는 오 래 가지 않았다"며 "이번 비례대표 공천에서 광주는 완전히 배제됐고 국 민의힘에 호남은 없었다"고 주장했

이들은 "광주 책임당원들은 참담한 렵다"고 강조했다.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비례대표 광 주 배제는 당과 지역을 위해 헌신한 책 임당원들을 철저하게 기만하는 행위" 라며 "비례대표 공천으로 광주의 정치 지형을 바꾸고자 했으나 결국 물거품 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4년 전 비례대표 후보 2 0인 중 25%는 호남 지역 인사를 우선 추 천하는 규정이 당헌・당규에 명문화된 뒤 처음 적용되는 것이어서 더 기대를 했다"며 "이번 공천으로 광주는 희망 이 사라졌으며 총선에 대한 동력도 상 실했다. 광주 배제에 대해 시정하지 않 으면 총선 선거운동을 더 이상 하기 어

특히 이들은 "중앙당에서 광주를 배 제하면 앞으로 선거에 출마하려는 좋 은 후보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호남을 배제한 비례 공천으로 국민의 미래는 미래가 없고, 국민의힘은 당원 들에게 신뢰를 잃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광주 당원들을 절망시키지 말라" 고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미래가 전날 발표한 비례대표 명단 중 호남권 인사는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5번)과 인요한 전 혁 신위원장(8번)이 20위 안에 배치된 반 면, 김화진 전 전남도당위원장(22번) 과 주기환 전 광주시당위원장(24번)은 20위 밖에 이름을 올렸다. 주 전 위원장 은 이에 반발, 비례대표 후보를 사퇴했 다. /박선강기자

## 道, 수리시설 개보수 국비 1천343억 투입

#### 전국 최대…가뭄 극복·영농 불편 해소 기대

전남도는 19일 "전국 최대 규모인 175 개 지구에 국비 1천343억원을 투입, 가 뭄 극복 및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한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 다.

올해 전남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예산은 전국 예산 6천404억원의 21%를 차지하는 규모다. 신규 지구도 전국 258 개 지구 중 전남이 76개 지구(29%)로 가장 많다.

수리시설 개보수는 각종 재해를 예 방하고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안정적 인 농업용수 공급을 목표로 한다.

정밀안전진단(정밀 점검) 및 안전 점검 결과를 토대로 노후하거나 기능 이 저하된 저수지, 용·배수로 등 농업 생산 기반시설을 전액 국비로 보수・보

세부 사업은 ▲노후·파손 또는 기능 저하로 재해 위험이 있는 저수지나 효 율성이 낮은 양·배수장 등을 보수·보 강하는 수원공 83개 지구 653억원 ▲원 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파손되거나 물 손실이 많은 수로 재시공, 토사 퇴적된 흙수로를 구조물화 하는 용배수로 54 개 지구 464억원 ▲토사 퇴적으로 저수 억원 ▲낡고 기능이 저하된 배수장 성 능개선 1개 지구 23억원이다.

특히 올해 신규 지구는 고흥 당두양 수장, 함평 월야간선 등 노후 시설을 개 선하기 위해 76개 지구(총사업비 1천46

8억원)가 선정돼 연내 세부 설계 및 시 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조속히 사업 을 착수할 계획이다.

계속사업 67개 지구와 준공 사업 32 개 지구는 연차적 사업 계획에 따라 영 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양시원기자

#### 광주시, 장애 여성 취업 지원

광주시는 19일 "장애 여성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과 사회 활동 참여 촉진 을 위한 '2024년 장애 여성 취업 지원 사 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광주여성인력개발센 량이 부족한 저수지 준설 37개 지구 208 터를 올해 장애 여성 취업 지원 사업 수 행기관으로 선정했다.

> 광주시는 오는 4월 광주여성인력개 발센터를 통해 장애여성 35명을 공개 모집해 직무교육, 사업장 취업 등을 지 원할계획이다. /박선강기자



+